미련함, 멸망 얻는 '오직 믿음'

(잠언 26:1~28)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6.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7.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미련함, 멸망 얻는 '오직 믿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미련함, 멸망 얻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도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멸망을 얻는 오직 믿음을 미련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미련함을 이루는 믿음의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터무니없음이고 둘째는 어처구니없음입니다. '터무니없다'라는 말의 어원은 터를 만들려고 했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근거나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처구니없다'라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입니다. 손잡이 없이 맷돌을 돌리려는 것처럼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예'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은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붙이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내가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유명한 인사가 아니어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라도 내 이름이 기억된다면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오는 것 같으니라'고 합니다.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은 이상 기후에 의해 벌어지는 순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해 가시는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일이 이러합니다. 즉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곡식이 다 썩고 상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의 존재는 인간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마디로 미련함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미련함은 곧 터무니없음과 어처구니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만드셨습니다. 이 마음의 공백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부분이기에 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가능하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 크기로 지어졌기에 세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가치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도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러한 믿음은 터무니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려고 하지만 터무니없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고 믿지만 터무니없습니다. 명품백을 사면 만족할 것이라고 믿지만 터무니없습니다. 자식의 형통이나 나라의 부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없고 현실 불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함의 첫째 속성입니다.

미련함의 둘째 속성은 어처구니없음입니다. 맷돌의 손잡이가 없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 바라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 것들을 마음에 잔뜩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앴습니다. 맷돌을 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리실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꼭 뉴스에 나올만한 대단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곳간에서 맷돌을 꺼내어 녹두를 갈아서 빈대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정작 맷돌의 손잡이가 없어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속성들을 가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2절에서 나타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

고 하였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떼를 지어 이리저리 날아다닐 때에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규칙도 없이 움직이다가 곧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저주는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라도 권총이나 화살로 다른 사람을 향해 쏘면 그 방향으로 날아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저주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적으로 저주를 퍼부어도 총알처럼 날아가 박히지 않습니다. 설령 저주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일지라도 내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함의 결과로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주는 결코 타인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의 속성들 즉 터무니없음과 어처구니없음이 저주와 멸망을 가져다줍니다.
이처럼 저주가 주어지는 미련한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합니다. 십년, 이십년, 삼십년을 애써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 의도와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련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주가 임한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가 3절에서 나타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라고 했습니다.
말은 채찍을 맞으면 순종합니다. 나귀도 재갈을 물리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막대기로 맞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십년간 돈을 벌려고 애썼지만 결국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보다’라는 생각을 해봄직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십년 벌어서 안 됐으니 다시 십년간 더 해보려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한다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계획합니다. 그래서 십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뜻이 아닌가보다’라고 깨달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여기서 다시 십년간 도전합니다. 결국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서까지도 돈 계산에 열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돈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인 마음의 공백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움직여 가실 손잡이가 없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련한 자들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막대기로 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칠전팔기를 외치며 결국은 돈을 벌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런 삶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나 빌라도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미련한 자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손잡이가 쥐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창조적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미련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대역사의 소모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 내린 눈은 조금도 쌓이지 못합니다. 미련함 즉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3절까지가 미련해지지 않기 위한 경계였다면 4절부터는 세상의 미련한자를 대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내용이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말은 미련한 자와 같아지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돈에 대한 예를 들어 살펴봅니다. 자꾸 돈을 언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대치관계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예를 들어봅니다. 동창이 찾아와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푸념을 할 때에 나도 그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4절이 경계하는 어리석은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창은 돈이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돈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생겼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미련한 믿음에서 비롯된 가치관에 동조한다면 결국 어리석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5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따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행동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동창이 와서 돈 이야기를 해서 동조하는 것은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따라'는 돈 이야기를 하는 동창에게 지혜 있는 자로써 해줘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동창에게 돈을 더 벌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거나 돈을 빌릴 방법을 귀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 여기는 미련한 믿음 자체를 문제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고 미련한 자의 마음에 동참한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돈에 기인한 가치관을 유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형을 설득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유대 법에서 정한대로 동생인 자신도 유산을 상속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14~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시며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어리석은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동생은 억울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생 편을 들어서 유산을 받게 해주셨더라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불평등함에 대해 언급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돈으로 채워진 마음자체를 문제시 삼으십니다. 그 유산으로 인해 억울해하는 마음에는 탐심이 있으니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나와서 목사님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돈 없어서 걱정하고 사업이 안 되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적 차원에서 그 어리석음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공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공감하면 목사님의 설교 또한 결국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라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가 있다면 목사님이나 먼저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안됐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기쁨과 만족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업이나 자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다음에 사업과 자녀를 대하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미련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자녀가 형통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미련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마음가짐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하는 인생의 손잡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미련한 자에게 이 손잡이가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별'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기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리라 여기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복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서른세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에는 어떤 지혜로운 말을 집어넣어도 돼지고기를 갈아 소시지를 만드는 것처럼 형체를 알 수 없게 분쇄되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은 교인수가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예배당이 번듯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말씀은 통째로 분쇄됩니다. 본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주신 기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별조차도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용할 때에 완전히 변형되어 버리고 맙니다. 미련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 미련함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터무니없는 믿음이 작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각인된 유전죄의 기질입니다. 이 세상 것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은근히 걱정하든 노골적으로 걱정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긴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선한 계획을 돌리실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마음에 엉뚱한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계획이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려 막대기로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대기로 치시기 전에 얼른 십자가로 뛰어가서 미련한 마음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의인 곧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은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수두룩하기에 이 상식

적인 일이 일어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미련함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믿음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미련함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원히 종지부 찍혀지는 삶을 연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